

HYUNDAI E&C TODAY

ART+H

Guri-Amsa Bridge

일상이 여행이 되는 순간 가을 한강 산책

The Han River, a symbol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a trademark of capital Seoul, has 31 bridges. Starting with the redevelopment of the Hangang Bridge in 1957, Hyundai E&C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13 bridges including the Yanghwa Bridge (1965), Hannam Bridge (1969), Seongsan Bridge (1980) and Guri-Amsa Bridge (2014). Among them, the Guri-Amsa Bridge connecting Amsa-dong in Seoul and Acheon-dong in Guri-si well demonstrates the technological prowess and capability of the builder.

As the autumn mood is in the air, many citizens visit the area around the bridge. Looking at the beautiful sunset and walking beside charming cosmos flowers already turns one day into a journey.

한반도 중심부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한강'.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서울의 트레이드마크인 한강에는 31개의 다리가 있다. 현대건설은 1957년 한강 인도교(現 한강대교) 재건 사업을 시작으로 양화대교(1965), 한남대교(1969), 성산대교(1980), 구리암사대교(2014) 등 13개의 다리의 시공을 맡아 왔다. 이 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사이를 잇는 구리암사대교는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저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현장이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고 있는 요즘, 구리암사대교 인근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환상적인 노을을 바라보며 탐스럽게 피어난 코스모스 사이로 거닐다 보면 어느새 일상도 여행이 된다.



구리암사대교

MOU signed between Hyundai E&C and PT Hutama Karya Vice Chairman Chung Jin-haeng promotes cooperation with Indonesia

Our company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October 9 with Indonesia's PT Hutama Karya, a state-owned construction company, to cooperate in conducting the country's major national projects.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about 30 key figures including Hyundai E&C's Vice Chairman Chung Jin-haeng and PT Hutama Karya's CEO Bintang Perbowo. Currently, PT Hutama Karya operates 20 toll roads within Sumatra Island and has technologies and skills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projects.

Both companies will take this MOU signing as an opportunity to



seek mutual cooperation to conduct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relocation of capital and the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ways linking Cilegon with Patimban, a seawall in northern

Jakarta and large-scale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facilities. Our company has successfully completed 25 projects worth 3.1 billion dollars since we entered the In-

donesian market in 1973 by building the Jagorawi Toll Road. Currently, we are conducting two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the Peusangan hydroelectric power plant.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기업 후따마 까리야 MOU 협약

정진행 부회장, 인도네시아 인프라·투자개발·플랜트 사업 협력 추진

우리 회사가 10월 9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기업 후따마 까리야(PT Hutama Karya)와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은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해 후따마 까리야의 빈탕 빠르보워(Mr. Bintang Perbowo) 사장 등 관련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

프라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따마 까리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부문의 공기업 대표 지주사로 전환·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20여 개의 유료 도로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 개발·운영 사업의 노하우를 보유 중이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2기 정

부에서 추진 계획인 '수도 이전 사업' '질레곤-빠뎀반 도로 및 철도 사업'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뛰어난 건설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현대건설과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인 후따마 까리야의 전략적 협력이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양사의 상호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73년 자고라위 고속도로 공사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래 사물라 지열발전소 등 총 25건 약 31억 달러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현재 푸산 수력발전소 등 2개 공사를 수행 중이다.

1925억원 규모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프로젝트 수주

우리 회사가 10월 2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구간을 수주했다.

인천에서 발주한 검단연장선 1호선 프로젝트는 인천시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로 총 6.895km에 달한다. 이 중 우리 회사가 수주한 1공구는 인천시 계양구 다남로에서 서구 원당동 일원을 잇는 총연장 3.3km 구간이다.

주요 시설물은 ▶터널 ▶환기구 2개소 ▶대피시설소 등으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개월이다. 우

리 회사는 영동건설·국원건설·원광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에 참여한다.

검단연장선 1공구 터널 공사는 '월드TBM' '고성능 로드헤드' 등 기계화 굴착을 응용한 최적의 복합공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컨트롤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도 품질·시공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 회사는 현재 '대곡·소사 복선전철 현장' '싱가포르 MRT 동부선 T308 현장'에서 해당 공법을 성



공적으로 시공 중이며, 지난 5월 수주한 김포~파주 2공구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우수한 선진 기술 노하우와 풍부한 지하공간 공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

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 쾌거를 이뤘다"며 "향후 발주될 국내의 철도 프로젝트들에서도 현대건설의 품질 및 기술력으로 공사를 따내는 것은 물론 전세계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KT와 5G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 협력

우리 회사와 ㈜KT가 10월 1일 공동 분사 사옥에서 '5G 기반 스마트 건설·건설 자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T의 5G 통신망 기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건설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다양한 자동화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기술 협력 분야는 ▶5G 기반 건설 분야 생산성·품질 향상 기술개발 ▶5G 건설 현장 스



마트건설 기술개발 등이다. 기업 전용 5G 기술은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건설 현장 자동화에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는 건설사 최초로 기업전용 5G를 도입해 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배구단, 통산 3번째 KOVO컵 우승

현대건설 배구단이 통산 3번째 KOVO컵 우승을 하며 V리그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28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19 순천·MG새마을금고컵 여자부 결승전에서 KGC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 회사는 2006년과 2014년 이후 5년 만에 통산 3번째 컵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날 공격성공률 40.35%(26득점)를 기



록한 고예림 선수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대회의 MVP로 선정됐다.

한편 프로배구 정규리그 '2019-2020시즌 V리그'는 10월 12일 막을 올렸다. 우리 회사는 오는 23일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사내 소식

싱가포르 주릉도시공사 기술협력 MOU 체결



우리 회사와 싱가포르 주릉도시공사(JTC)가 지난 9월 10일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양사는 ▶디지털 관리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 건설 분야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과 JTC사 응랑(Ng Lang)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양사 간 기술 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싱가포르 발주 공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R&D센터를 방문한 JTC 경영진은 R&D 센터와 그린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GSIC) 등을 견학하며 우리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건설·스마트홈 기술 등에 대한 현황을 안내받았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6기 발족식



우리 회사가 최근 현대사농장 연수원에서 임직원 멘토 16명, 대학생 멘토 20명, 청소년 멘토 16명,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6기를 발족했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봉사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설 분야 전문가인 현대건설 임직원 멘토, 같은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대학생 멘토,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멘토가 1:1로 전담 팀을 구성해 장기간 멘토링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9월 말부터 약 10개월간 활동에 들어간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에너지저장장치 국내 최대 규모 보급 사업 전개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보급 사업을 전개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9월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혁신산업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Secrets behind Korea's global app dominance

Oct 02

Face Gill, a 20-year-old Australian currently residing in Seoul, is fully immersed in the culture of Korea. Most of all, she loves to cook Korean food for her acquaintances. She actively chooses to surround herself with Korean culture and products, but she just learned that she's been using a smartphone app developed by a Korean company.

"Is this app really made in Korea?" She asked while pointing to ColorNote, an app that is installed on her smartphone, produced by developer Social and Mobile.

Gill has been using the notepad app for two years simply because it is easy to use and doesn't take up much space. While the average notepad app is usually over 20 megabytes in size, ColorNote is merely 3.26 megabytes. ColorNote is offered in 31 languages, including Arabic and Hebrew, and it is available in 230 countries.

However, ColorNote is not the only Korean app taking the globe by storm. Smart Study's Pinkfong Shark Family app is also extremely popular. About 99 percent of its users reside outside of Korea thanks to the immense popularity of the Baby Shark song on YouTube. The clip, in which a baby shark and its entire family is introduced one after another, has earned more than 3.4 billion views as of this month.

The app offers nursery rhymes, songs, simple games and coloring activities for preschoolers. The Pinkfong Shark Family tops the education category in man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Saudi Arabia, Oman and Bahrain. When Pinkfong held a concert in Abu Dhabi and Dubai, United Arab Emirates, in June 2018,



Left: Pinkfong characters, Right: Pinkfong Shark Family app is hugely popular outside the country. [SCREEN CAPTURE]

more than 100,000 people were in attendance.

Na Hye-yeon, from the public relations team at Google Korea, said, "Pinkfong enjoys tremendous popularity around the world. The company has created this killer content of a baby shark and expanded its business based on the content into the app market."

OGQ Backgrounds is also on the list of the most downloaded apps at Google Play. The app functions as a platform in which amateur and professional artists upload their creations and put them up for sale while users look through a list of background wallpapers under various categories and purchase the ones they wish to download. The app had been downloaded 120 million times by 2017. It is available in 190 countries and has 100 million visitors per month on average. The app has developed into a social app where about 2.5 million artists are connected with their consumers by sharing images, illustrations and

music, according to OGQ Corporation.

Mobizen, which was developed by Korean company Rsupport, has a firm footing in the overseas market. The app enables users to record everything that happens on their screens and 94 percent of its downloads come from overseas.

"It's not popular in certain countries, [but where it is available,] it is especially popular among teenagers and men in their 20s regardless of nationalities. They want to record [the games they play] and show it to others around them," said an official from Rsupport who didn't want to be identified.

Mobizen has been downloaded 100 million times and it is often recommended as a must-have app among mobile game users. The app is especially popular in Brazil, where 15 percent of its users are located.

Korean apps are hugely popular in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and South America, where K-pop is widely consumed. That is where Malang Studio has found its success. It developed an alarm clock app called AlarmMon. The app has added voices of K-pop stars such as Winner, Oh My Girl and GFriend, so that its users are able to select their favorite stars' voice as an alarm.

By KOREA JOONGANG DAILY



Hello! Foreign Staff

"Hyundai E&C is a part of my dream"

JOJIT DIZON MAGPANTAY
(Material staff in Dubai office, UAE)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came from the province of Batangas in the Philippines, and it is a pleasure to meet you. I got my engineering degree in the Technological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and worked at different companies. I am happily married with one son who is now on his secondary level at Saint Theresas College. My wife works as a travel consultant and property specialist in the Philippines. I have been working for Hyundai E&C since 2007. My career with Hyundai E&C started in Saudi Arabia as procurement staff, and I presently work in a centralized Logistic and Procurement team in Dubai, UAE. I love my job mainly because of challenges going along with it and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people. The best lesson I have learned in life is not to give up but just keep on pursuing our dream.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Working abroad is really hard for me because I should be far away from my family. But I have no choice, so I decided to work abroad and worked in different countries until I joined Hyundai E&C. Well, I believe in destiny. Joining in this company was just a part of my dream

before. My goal is simply "to be hired and employed by a reputable company, which offers the best opportunities with competitive compensations and benefits based on qualification and performance." I am proud of working for Hyundai E&C with such a long good reputation. Opportunities came, and all I can say is Hyundai E&C has changed my life and made it more meaningful. With Hyundai E&C, I am definitely confident that my family's future is always safe.

Q What do you think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arry out your work?

As procurement staf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for my work is prop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project site people. Also, I love to learn new things and combine them with my experience. For me, the best thing to do is to focus on respective tasks. I have to know my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be more productive each day. Having a positive mind creates positive results, and having an optimistic attitude creates a very effective employee. Moreover, as procurement staff, we are known with highly visionary and goal driven traits. That's why we can see far beyond what is in front of us. We look forward and use strategic analysis to maximize our profits. In this way,

we not only develop our negotiation skills, but also broaden connections to different fields.

Q Please give some advice to new foreign employees.

To be honest, communication is not as hard as others think when I work with Koreans. Of course it can be a quite challenge for new foreign employees when it comes to cultural and traditional differences, but the most important is to understand each other. In my personal experience with Koreans, they are very supportive in everything, either personal or work related, and they are always there as not only your superior but also a friend. Being with Koreans for a year, I guess respect is considered important. Learning from their culture and values is the first thing you should know, such as the way how they greet each other, being punctual, etc. If you are a new foreign employee, you should also learn how to apologize when a problem arises, whoever mistake it is. Do not promise anything to them. Just prove it day by day and this will build trust and develop a healthy working relationship. Just work as hard as you can and you will grow into an employee you are meant to be.



Hyundai Motor Company and Cummins to Collaborate on Hydrogen Fuel Cell Technology

Hyundai Motor Company and Cummins Inc. (NYSE: CMI) have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jointly evaluate opportunitie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electric and fuel cell powertrains.

These new powertrain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by combining Hyundai's fuel cell systems with Cummins' electric powertrain, battery and control technologies; the initial development will be focused on the North American commercial vehicle market, including working with North American OEMs on the integration of these systems into their vehicles.

The companies will also explore ways they can work together to develop next generation fuel cell systems, and have each committed to assign a team of individuals to investigate and pursue other areas of collaboration.

"This partnership is a terrific opportunity for both companies to leverage our respective strength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to grow and broaden the product portfolio we bring to our customers," said Thad Ewald, Vice President, Corporate Strategy, Cummins Inc. "We've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over the past year to accelerate our fuel cell capabilities including our acquisition of Hydrogenics and this partnership is another step forward."



2019 현대건설 기업 홍보영상
상상 그 이상의 틀을 깨다!

OUT OF FRAME

Out of Frame, 현대건설 우리 회사가 전형적인 기업 홍보영상의 형식에서 벗어난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국내외에서 시공한 현장을 미학적 구성과 속도감 넘치는 편집으로 담아내 임직원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plorer, Innovator, Pioneer 라는 3개의 소주제로 현대건설의 도전정신과 혁신, 미래를 표현한 '2019 현대건설 기업 홍보영상'의 제작 의도와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글·정리=장은비

현대건설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의 지력을 보여준 우리 회사 홍보영상이 지난 9월 25일 공개됐다. 'Out of Frame'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영상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내용과 현대건설의 핵심정신인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

재생시간이 10분을 넘는 일반적인 홍보영상과는 다르게 우리 회사 영상은 5분 안에 총 5개의 챕터를 압축해 보여준다. 메인 콘셉트인 '건설은 예술이다'를 가장 잘 표현한 챕터는 'Intro(도입부)'로, 하이라이트 장면은 플랜트 현장의 야경이 밤하늘의 별빛으로 반짝이는 순간이다. 이는 'Out of Frame'의 상징적인 컷으로 우리 회사가 건설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내포한다. 1947년부터 시작된 현대건설의 도전정신과 역사는 'Explorer(익스플로러:도전정신)'에 담았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는 우리 회사의 지력과 잠재력을 생생하게 그려낸 챕터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철학은 'Innovator(이노베이터:기업철학)'로,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이로운 지속가능한 건설과 자원의 무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우리 회사의 노력을 소개한다. 현대건설만의 첨단 기술력을 표현한 'Pioneer(파이오니아:첨단기술)'에서는 스마트시티 건설 및 현대자동차를 시너지로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우리 회사가 각 산업과 융·복합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는 'Outro(마무리)'에서는 상상과 이상이 실현되는 미래이자,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다.

단순히 회사의 업적을 나열하는 여타의 기업 영상과는 다르게, 우리 홍보영상은 'Out of Frame' 슬로건에 맞춰 새로운 형식

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지루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콤팩트한 정보만 담아 보는 이의 집중도를 높였다. 속도감 있는 영상 편집과 전자음악 기반의 록비트는 젊고 도전적인 기업 이미지를, 초현실적 세련미가 돋보이는 화면구성은 건설의 예술성 및 첨단기술력을 표현했다. 홍보영상 담당자는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새 길을 개척해가는 리더로서, 건설도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정교한 예술 작업임을 부각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며 "쿠웨이트 세이브 코즈웨이 해상교량, 카타르 국립박물관 등 현대건설의 지력으로 완성한 세계적 랜드마크로 글로벌 건설기업의 위상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영상을 통해 직접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대체로 기업 홍보영상은 기획부터 배포까지 대략 1년가량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우리 회사는 단 7개월 만에 홍보영상 제작의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방문부터 촬영할 로케이션까지 철저하게 사전협의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숨은 일등공신은 단연 현장 담당자들과 유관부서다. 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절대 일정에 끝까지 못했을 이번 홍보영상.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 달 동안 4개국 30여 개의 현장을 돌며 원활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제작 일정 속에도 멋진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처럼 생각하고 도맡기에 가능했다. 모두의 도전이자 현대건설의 지력을 그대로 보여준 'Out of Frame'이 바로 우리 직원들 모습이었다.

*홍보영상 촬영에 도움주신 현장 및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을 수 없던 출장 뒷이야기

중동은 비가 내리지 않는단데?



빠듯한 일정으로 웨더데이(Weather Day)를 잡지 못했다. 설마 중동에서 비를 만나겠나 생각했는데, 해외 3개국에서 모두 비가 오는 악운이 겹쳤다. 우기도 아닌데 쿠웨이트에서는 천둥벼락이 쳤고, 카타르에서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초강풍마저 불어 쿠웨이트 알주르 LNG현장에서는 규모감을 담고자 가져갔던 드론은 날려보지도 못하고, 이동하는 내내 차 문도 힘겹게 열고 닫았다. 건기로 알고 있던 싱가포르조차 흐리고 비가 내리 속도 100%를 만끽할 수 있었다.

카타르는 드론 반입이 안된단데?



카타르는 드론뿐만 아니라 모든 촬영 장비 반입이 안 된다. 준비해간 촬영 장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공항에 맡기고 민손으로 카타르에 입성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제작팀은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장 비슷한 성능의 촬영 장비를 대여했다. 무엇보다 영상의 무빙감을 위해 짐벌이라는 장비가 꼭 필요했는데, 카트를 빌려 이를 대처했던 상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명은 카트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한명은 카트를 밀며 일심동체로 움직여 자연스러운 속도감을 담아낼 수 있었다.

시차 적응부터 짧은 일정 안에 많은 것을 담아내는 노하우?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것을 담아내야 했다. 짧은 출장 일정은 현지에 도착한 첫 날부터 쉴 틈 없이 땀뻑하게 촬영을 하게 만들었다. 일출부터 일몰, 야경까지 하루 안에 담아내야 했기에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도착한 날 새벽 4시부터 저녁 8-9시까지 촬영을 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행군 덕분에 머리만 대면 잠에 들었다. 국내 현장도 녹록치 않았다. 바다의 상황에 따라 촬영 일정을 조정해야 했던 서남해상풍력 현장도 기억에 남는다. 파도가 높아 3번이나 다시 일정을 맞춰지만, 결과적으로 마음까지 정화되는 파란 하늘과 바다를 풍력발전기와 함께 담을 수 있었다.

사막의 장미를 찾아 카타르 삼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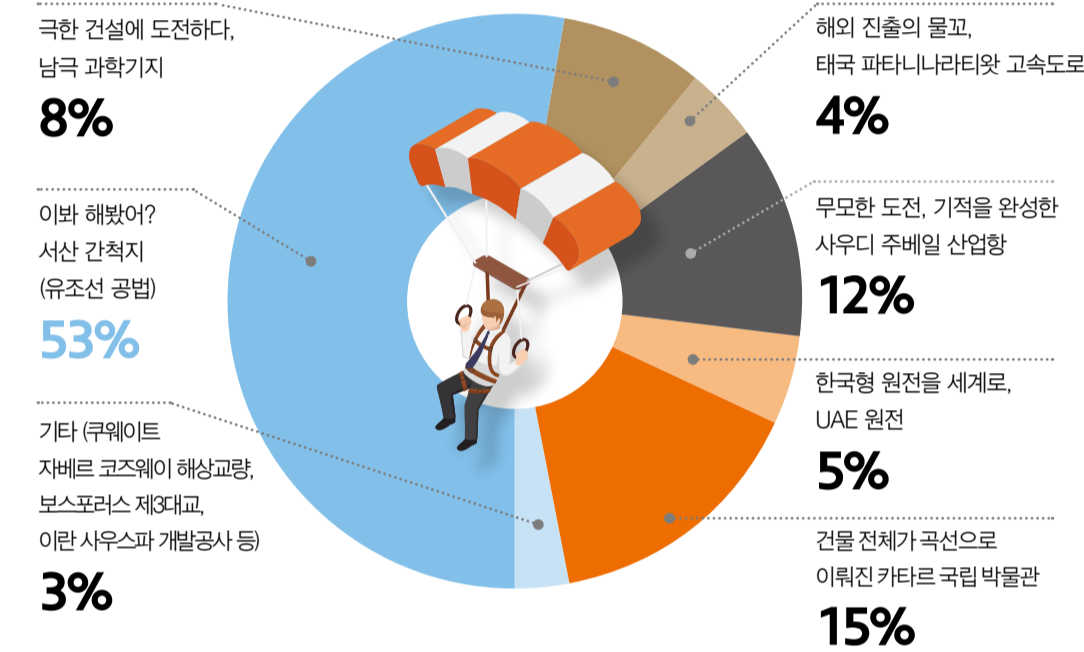
카타르 국립박물관의 모티브가 된 '사막의 장미', 촬영의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타르에 도착한 날부터 현지 시장을 찾아다녔다. 시장을 살살이 돌아본 끝에 윌리터 좋은 사막의 장미를 구매해 당당히 현장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카타르 국립박물관 기념품 샵에서 힘겹게 찾은 '사막의 장미'를 팔고 있었다. 허탈했지만 기념품 샵에서는 시장보다 조금 비싸게 팔고 있었기에 나름의 위안을 얻었다. 어쨌든 그때 구매했던 사막의 장미는 현재 본사 5층 VIP룸에 전시되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현대건설 임직원이 말하는 Out of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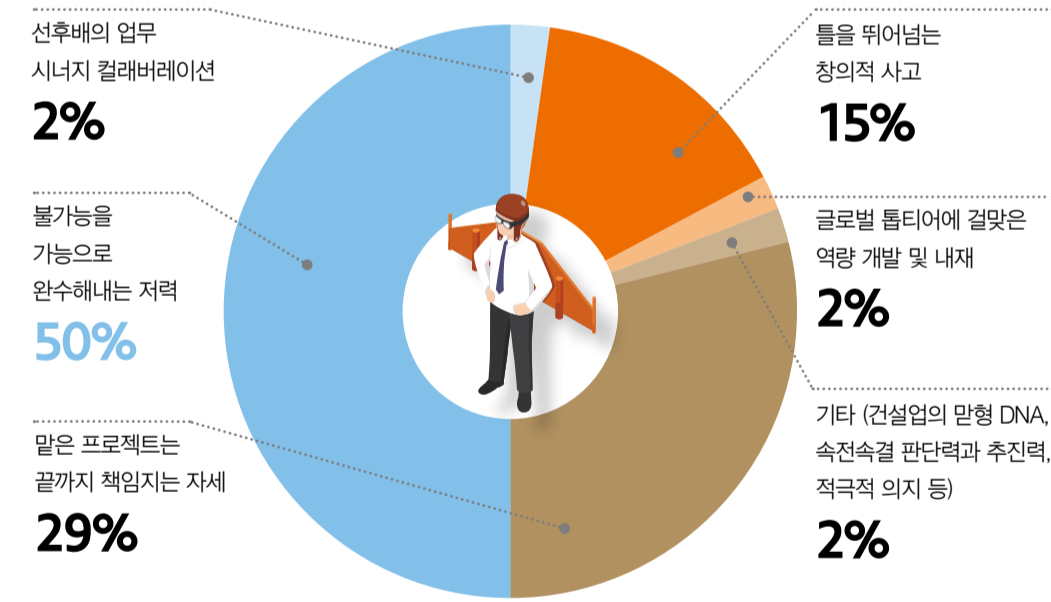
'Out of Frame'은 2019년 회사 홍보영상의 키 슬로건으로 현대건설만의 지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현대건설인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 (사보신선)에서는 홍보영상의 슬로건인 'Out of Frame'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끊임없이 프레임을 넘어 건설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회사 임직원이 말하는 아웃 오브 프레임 소개한다. 조사기간 9월 30일(월)~10월 8일(화) / 응답 인원 임직원 7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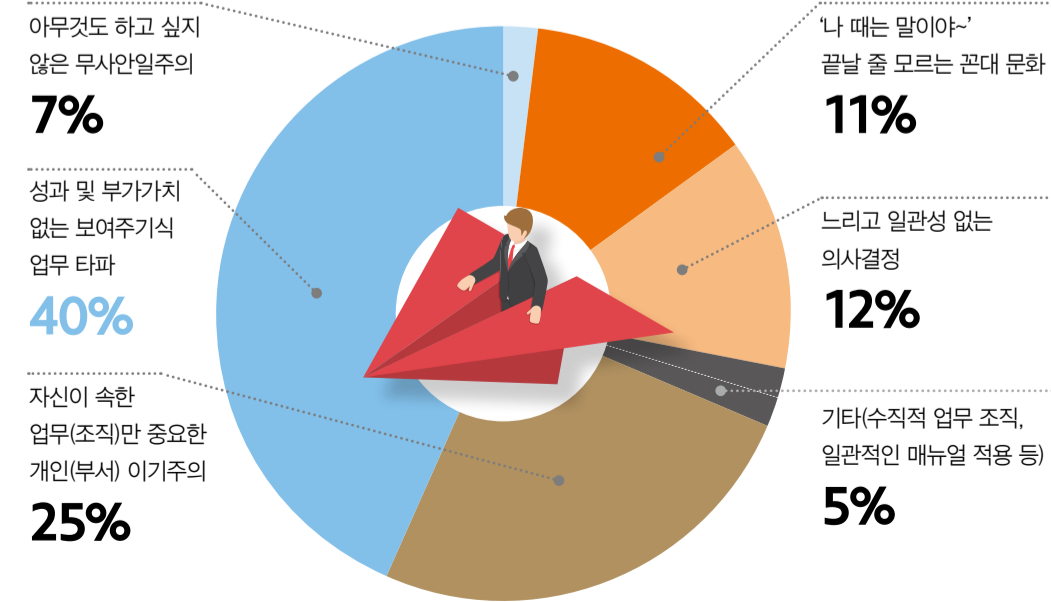
Q1 72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회사의 가장 'Out of Frame'한 프로젝트는?



Q2 다방면에서 'Out of Frame'한 현대건설의 핵심 DNA는?



Q3 앞으로의 도전을 위해 우리 회사가 'Out of Frame' 해야 할 항목은?



Q4 기존의 업무 방식을 깨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완수한 노하우가 있다면?

창의성 발휘
신공법 개발 성공사례 공유
 긴밀한 유대관계 **역발상 사고** 유연한 대처
 회색시대 제거 **능동적 업무 수행**
 차별화된 솔루션 융통성 있는 업무방식 **도전적 자세**
 절차의 한계성 극복 **현장의 공사업무 전체 공유**
 사내기준 업데이트 **이기주의 탈피**
포기하지 않는 자세

우리 회사 홍보영상, 한 단어 감상평은?

참신함 **Fabulous**
 프로페셔널 **현대정신**
 혁신적 **예술의 명가 Wow**
 끝없는 질주 **센세이션한 Dynamic**
Trendy 신박한 기발한 세련된
필요불가결 화려한 영상미
진취적인 리듬감



주베일 산업단지에서 '사우디 최대 단일 초고압 변전소'를 건설하다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현장

'20세기 대역사'로 불리는 주베일 산업항의 준공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산업도시로 성장한 주베일(Jubail), 석유화학·철강·비료공장 등 수많은 플랜트 설비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에 우리 회사가 시공한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현장이 있다.

글=박현의 / 원장리포터=임창근 부장, 예창애 차장



1 밤이 아파온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현장 야경. 2 380kV 가스 절연 개폐 장치(GIS). 3 노무자들이 통제실(LCC: Local Control Cubicle) 케이블을 단말 작업에 한창이다. 4 380kV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변전소 건물 내부로 반입하고 있다. 5 임창근 현장소장이 외국인 직원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모습.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공사는 새롭게 들어서는 주베일 주거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변환하는 프로젝트로, 단일 변전소로는 사우디 최대 규모다. 우리 회사는 사우디 동부 주베일 산업단지 지역에 380kV 변전소 1개소 신설과 기존 변전소 30개를 개보수하는 이 프로젝트를 2014년 7월 일괄도입(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 포함) 방식으로 수행했다. 발주처는 사우디전력청(SEC)으로, 공사 금액은 2억 8600만 달러다.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현장 임창근 소장은 "현대건설이 일괄턴키(EPC Lump Sum Turnkey)로 수행한 이 공사는 우리 회사가 지난 30여년간 사우디에서 수행해 온 유사 공사의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우디 전력 분야에서는 몇몇 로컬업체 외에 우리 회사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2014년 7월 착공한 현장은 ▶2015년 5-12월 발주처 차고 이동 및 공사 부지 인수 ▶2015년 11월-2016년 7월 주요 건물 토목-건축 작업 ▶2016년 7월-2017년 4월 380/230/115kV GIS(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및 750/502MVA 변압기 설치 ▶2016년 9월-2017년 12월 저압·고압·초고압 케이블 설치 ▶2017년 2월-2018년 4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상업 운전 중이다. 현재는 기존 30여 개의 변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1년 3월이다.

한국인·외국인 직원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1976년 주베일 산업항을 수주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첫발을 내딛은 우리 회사는 1978년 리야드 변전소 설치 공사, 지난 전력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 송변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우리 회사가 사우디

사우디 내 최고의 전기 프로젝트팀
현장의 공정관리 능력도 뛰어났다. 공사 부지는 사우디 전력청의 자재창고로, 발주처에서 자재 이동 등 부지 정리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더니 착공 시점에 다다라 우리 회사에 추가 발주를 넣었다. 이

때문에 2015년 3월로 예정돼 있던 토건(토목·건축) 공사가 11월로 미뤄졌다. 현장은 지연된 공기를 따라잡기 위해 토건 공사 영역을 돌로 나누고, 업체를 각각 선정해 경쟁구도를 만들었다. 또한 전문 주기자재수행팀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일간·주간·월간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월의 공정 만회를 이뤄냈다.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현장 직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대내외에서도 크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현장 직원들이 우리 회사 플랜트사업본부의 플랜트·에너지 협업 첫 모델이자 전기 공사 전문가팀으로서 타 현장에 투입된 것. 팀에 속한 한국인·외국인 직원들은 7억4600만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인 우스마니아 에탄화수처리시설 공사(이하 EDRF 공사) 현장에서 전기 공정 및 전기 시운전을 수행하며 능력을 펼치고 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발주처(EDRF 공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전 공정 무재해(500만 시간 달성, 2019년 10월 기준)는 물론, 시공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공사 현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한 양질의 전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반석으로 자리매김했다.



Hyundai E&C builds Saudi Arabia's single biggest substation

New Jubail 380kV substation

The new Jubail 380kV substation project aims to convert voltage in order to supply power to a newly developing residential complex in Jubail. It is the single largest substation in Saudi Arabia. Hyundai E&C received a turnkey contract from the Saudi Electricity Company (SEC) in July 2014 to build a new 380 kV substation and remodel the existing 30 substations in the Jubail Industrial City of the eastern province of the country. The construction project is valued at 286 million dollars and is slated to be completed in March 2021.

Hyundai E&C made its first inroads into the Saudi Arabian construction market in 1976 by constructing Jubail Industrial Port. Starting with a substation construction project in Riyadh and a power extension project in Jizan in 1978, Korea's primary builder became in the limelight in the kingdom's transmission and substation market. As of October 2019, the builder conducted about 160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ountry, among which 70 projects are associated with power distributio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construction. They were relatively small in size compared to other plant related projects, which led the builder to directly operating the supply of construction materials, workers and machine equipment for 25 years since 1995. As the foreign workers employed by Hyundai E&C filled a shortage of work force, not only Korean but also foreign employees could have professional skills.

A strong pride of the construction-site employees stems from the way they directly managed the new Jubail 380kV substation project from A to Z. As SEC made pertinent regulations more stringent in 2015, the builder became directly in charge of commissioning work which had been performed by subcontractors specializing in the field. Moreover, special attention wa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of gas insulated switchgears and transformers, key equipment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40 percent of the contract amount. To deal with this, the construction site strengthened the commissioning process by hiring new engineers approved by the client and making its all-out efforts to train the existing engineers.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nstruction knowhow of those working at the new Jubail construction site are well known at home and abroad. They were sent to another project site as the Plant Division's first collaboration model relative to plant and energy as well as an expert team for electric construction work. Both Korean and foreign employees display their abilities in conducting a mega-sized project worth 746 million dollars designed to build an ethane deep recovery facility (EDRF) in Uthmaniyah. Their enthusiasm and effort are well recognized by receiving an award from the project client Saudi Aramco.

As of October 2019, the new Jubail 380 kV substation project reached five million man-hours of no accident and gets credit for its construction capability,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Hyundai E&C to win quality power projects in Saudi Arabia.

Great People interview

사우디의 직영공사 전문가 현장소장 임창근 부장



임창근 현장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통(通)이자, 직영공사 전문가로 유명하다. 1993년 신입사원으로 사우디에 부임한 뒤 줄곧 한 나라에서 전력 프로젝트를 직접으로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 특히 뉴주베일 380kV 변전소 현장은 타 직영 현장에 비해 외국인 직원 수용 비율이 높아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현장에서는 나라별로 대표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영어를 못 하는 노무자를 위해 영상 자료 등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우리 현장은 현재까지 전 공정 무재해입니다. 2021년 3월 준공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프로 골키퍼'

공무파트장 정진호 부장대우



사우디 서부에 위치한 젓다 파와즈 하우징 380_110_13.8kV 변전소 현장에서 2년4개월 근무한 후 2018년 6월 동부부의 당 현장에 부임한 정진호 부장대우. 두 현장 모두 사우디전력청이 발주했지만 설계 승인 등의 절차가 지역별로 달라 부임 초기 애를 먹었다. 그는 공무파트장으로서 남다른 집중력과 꼼꼼함으로 동부 지역의 서류 특징을 빠르게 파악했다. 현재는 준공 증명서(FAC: Final Acceptance Certification)를 발급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처음 당 현장에 부임했을 당시 공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없어 업무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 24년간 근무한 소장님의 조언이 당시 큰 힘이 됐죠. 공무파트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별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월가절감에 큰 도움이 됐죠. 성공적으로 진행된 온 현장인 만큼 전 공정 무재해로 준공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전소 시운전은 내게 맡겨라!

시공·시운전파트장 김국진 차장



변전소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시운전. 2015년 9월 현장에 부임한 김국진 차장이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변전소가 시운전에 성공했을 때다. 발주처의 강화된 시운전 규정에 따라 신규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기존 엔지니어들의 역할을 개발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2018년 6월 4일, 현장은 시운전을 무사히 마치고 같은 달 17일 상업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 현장에는 현대건설과 함께 성장해 온 베테랑 외국인 직원 노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발주처의 규정 강화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수고로움을 이야기할 때 현장의 한국인 직원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인 3억'을 하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으니까요. 지면을 빌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Shaping my career in Hyundai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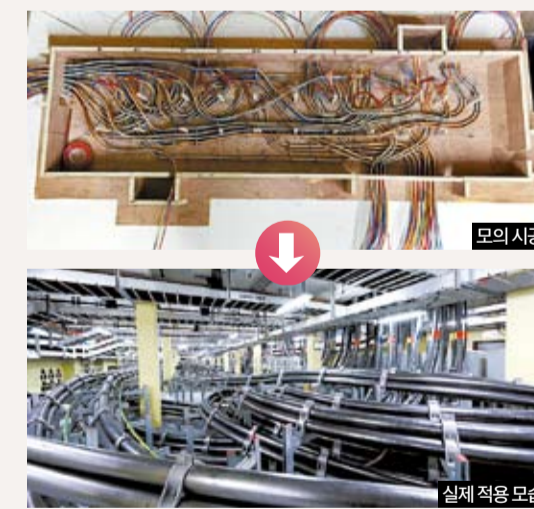
토목파트 JOSEPH VALENCIA CORTEZ 과장



"My career has basically developed with Hyundai E&C where I have spent my prime years of bountiful work experience as a civil engineer from 1994 to present. All these are made possible because of God's grace, hard work of my past, current leaders, and cooperation with my colleagues. It is both a pleasure and an honor to be a part of this prestigious company in different power transmission and substation projects in Malaysia, U.A.E, and Saudi Arabia where I am currently stationed. Presently, I am engaged with SS-386 in Saudi Arabia. I am looking forward to spending the coming years in gaining more experience on a higher level and at the same time guiding my younger colleagues in shaping their career with Hyundai E&C."

Zoom in

미터당 100kg에 달하는 초고압 케이블 '모의 설치'로 성공 시공!



사우디 최대 규모의 단일 변전소 공사인 만큼 현장에는 고압 케이블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 그 양을 따지면 230V 25005Qmm² 케이블 6800m², 115kV 20005Qmm² 케이블 3만7000m²에 달한다. 그중 현장 직원들의 이슈는 115kV 케이블을 줄은 변전소 지면에 설치하는 일이었다. 단위 미터당 100kg의 중량물인 탓에 땅에 한 번 포설하면 위치나 방향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 현장은 설계 단계에서 수차례 설계 변경을 진행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고민 끝에 '케이블 모의 설치'를 진행했다. 현장 직원들은 150배 축소된 케이블 모형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용이며 많은 케이블이 병합될 때의 문제점을 알아냈다. 결과를 토대로 지어 설치 부지 양옆으로 터널을 추가 시공해 공간을 확보했다. 덕분에 성공적인 케이블 설치는 물론 깔끔한 사전 준비로 발주처의 신뢰를 얻었다.

*50mm²는 Square millimeter의 줄임말로, 한국 표준(KV)의 전선 규격이다.

남미 진출의 관문, 콜롬비아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동향 ⑨ 콜롬비아 114만km²의 광활한 면적에 4550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콜롬비아. 긴 내전을 끝내고 지역 개발 및 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현재,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콜롬비아 건설시장의 동향을 살펴본다. 글=정성원 해외건설협회 미주유럽실 과장 (前한-페루 인프라협력센터장)

내전 종식 그리고 중남미 3위 내수시장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한 콜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중남미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50년간 지속돼 온 내전이 2016년 11월 평화 협정체결로 종식돼 평화와 화합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중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OECD에 가입하면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위 내수시장으로 성장했다.
현재 콜롬비아의 가장 큰 화두는 평화다. 그동안의 내전으로 불안했던 치안이 지역 개발, 농촌 개발, 인프라 사업, 교통·자원에너지 사업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으나, 지난 평화협정을 계기로 지역 통합과 함께 국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프라 및 기반산업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 건설 시장 규모는 2018년 218억 달러를 기점으로 향후 5년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인프라 개발 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부족한 국가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되는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4G 도로 인프라 양허 프로그램'으로 전국 도로망 8000km를 신규 건설 및 개·보수해 물류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6년간 총 18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추가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이다.



인프라 개발 사업 중 가장 주목 받는 프로젝트는 보고타 메트로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40년 넘게 계획과 취소를 반복한, 800만 보고타 시민의 염원과도 같은 프로젝트다. 2016년 마침내 중앙정부와 시장부가 메트로 건설에 합의를 하고 이제 최종 사업자 선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우리 한국 기업이 중남미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전력 분야 사업 기회도 있다. 콜롬비아는 전체 전력 생산의 60%를 수력발전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계절적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비수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향후 주목할 부분은 화력발전소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달,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선투자 정책 등의 발표로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도 수력발전을 제외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식이 화력발전인 점을 인지해 향후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 수처리 사업과 병원 건설사업도 다수 추진 예정이다. 특히 2019년 6월 콜롬비아 제2도시인 메데진에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사와 함께 준공한 '베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통해 향후 콜롬비아에서 발주되는 하수처리장 사업 참여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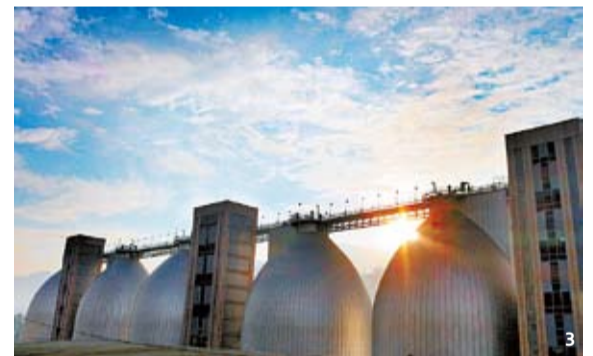
FTA(자유무역협정)·PA(태평양동맹) 등 새로운 기회로 준비해야

정치·외교적으로도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 당시 5000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로서 혈맹 관계라는 역사적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또한 2018년 8월 취임한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은 13년간 미주개발은행(IDB)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권이 확보되는 재화 및 서비스 등 창조성이 핵심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오렌지경제(La Economía Naranj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13년에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공사례와 관련한 통계가 언급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미래에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을 접목한 스마트

콜롬비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설시장 규모	218	232	251	273	291
건설시장 성장률	0.8	3.2	4.8	5.4	3.6
건설/GDP 비중	6.2	6.5	6.6	6.7	6.7

단위: 억 달러, % 출처: BMI



시티와 같은 분야에서도 우리 건설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콜롬비아에서 건설사업을 수주하기란 만만치 않다. 1997년 SK건설이 까르파헤나 정유공장 증설공사를 수주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 16건 프로젝트(5.4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국가 규모나 잠재력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역사나 문화적으로 콜롬비아는 유럽과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다.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독립한 지 200년이 지났지만 국민 대부분이 유럽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입찰과정에 있는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고, 언어도 스페인어를 구사해야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인 스페인이나 유럽 기업에 비해 입찰준비 기간이나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 계획부터 준비, 발주, 낙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복잡한 데다 정치적인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해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콜롬비아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멕시코 간 직항 비행편이 생기는 등 중남미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한국이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등으로 경제 교류도 밀접해지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콜롬비아 시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출을 도모할 때가 아닌까 생각한다. 기존 중동·아시아 시장을 넘어 콜롬비아 건설 시장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1 몬세라테 언덕에서 내려다본 콜롬비아 보고타 전경. 2 공공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추진에 힘쓰는 콜롬비아는 ITS(지능형교통시스템), ICT(교통-정보통신분야)에 특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 3 베오 하수처리장은 일일 처리 용량 43만(최대 56만)의 생활하수 및 산업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피플 인사이드 연기자 데뷔 만 20년인 공효진은 요즘 TV와 스크린에서 전혀 다른 두 얼굴을 선보이고 있다. KBS2 수목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하 <동백꽃>)에선 고아 출신 미혼모 동백으로,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감독 김한결, 이하 <가장 보통>)에선 티격태격 현실 연애를 하는 직장녀 선영으로. 씩씩한 미혼모와 돌직구 직장녀로 대중을 만나고 있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글=강혜란 <중앙일보> 기자 / 사진=NEW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배우 공효진

“공블리,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뿐”



온기와 냉기 동시에 뽐는 ‘원조 로코퀸’

공효진은 동백이 ‘온기 넘치는 시골 여자’라면, 선영은 ‘차갑고 뽀족하며 냉소적인 도시 여자’라고 말한다. 둘 다 공블리, 원조 로코퀸으로 불리는 공효진의 ‘캐디 이미지’를 전제하되 살짝 뒤틀린다. 특히 여덟 살 아들 필구를 홀로 키우는 동백에 대해선 “평범보다 더 평범한, 존재감이 유별나지 않지만 사람을 끄는 인물”이라고 했다. 실재론 마을 최고의 미인으로 그려지지만.

그녀는 이러한 평범한 인물 연기의 힌트를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얻는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쌓아올린 본능이랄까요. 관찰을 좋아해요. 특히 <다큐 3일>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람 구경하는 거요. 연기자가 연기하는 인간사보다는 진짜 인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짧은 순간에도 특출한 걸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 생활 정보를 전해주는) <6시 내 고향> 정말 좋아해요(웃음).”

드라마 속 배경인 웅산마을은 가상의 여촌마을이다. 포항의 12경 중 한곳으로 손꼽히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일대가 촬영지다. 음식과 동백의 험난한 연애를 주축으로 ‘까불이’라 불리는 연쇄 살인마 미스터리가 복합됐다. “학교 때문에 고아도 하나, 커서는 동네에 미혼모도 하나, 48만원 때문에 아들내미 철들게 하는 것도 하나 하나”라며 자책하던 동백이 자신을 응원하는 용식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칭찬받은 거 처음”이라고 말할 땐 웃음기 뒤에 짙한 울림

이 있다. 2007년 <고맙습니다>에 이어 12년 만의 미혼모 역할이지만 훨씬 강단 있는 모습이다.

“우는 연기도 예전처럼 똑같은 느낌을 안 주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슬플 때 쓰는 근육은 같잖아요. 미간 하나 안 찌푸리고 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늘 콧물이나 침을 너무 흘려요(웃음). 열 번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팍 박히는 대사를 할 땐 절로 눈물이 나죠. 이걸 생활 밀착형이다, 호소력 있다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현실감 ‘찌는’ 연기는 영화에서 더하다. <가장 보통>은 각자 최악의 이별을 경험한 남녀가 회사 동료로 만나 서로 상처를 헤집으며 가까워지는 이야기. 이별 후 ‘극혐’ 문자로 불리는 “자니?”가 수시로 등장한다. ‘가장 보통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2019년 버전의 남녀연애탐구생활 보고서라 할 만하다. 김래원과 2003년 드라마 <눈사람> 이후 16년 만의 재회다.

“이번 영화는 열린 결말에 ‘아쌀한(까끔한)’ 시나리오라 마음에 들었어요. 극 중에서 래원 씨와 핏대 세우며 싸울 때 촌철살인 리액션으로 받아치는 게 재밌었고요. 친구들끼리 보고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 쿨해서 좋았다.’ 이런 평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연애에 흑역사가 있고 그 때문에 센 척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 아닌가요.”

선영은 질척거리는 구남친에게 “이제 말하지만, 너의 XX보다 엄지발가락이 더 커”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끝에 퇴사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팩트 폭행’을 날린다. 이런 대목은 관객에게 통쾌한 대리 만족을 선사하기도

“관찰 즐겨... 그 옷 입으면 그 사람 된 듯
생활 연기 비결? ‘6시 내 고향’ 즐겨봐요”

한다. 판타지 기쁨을 짝 뺀 ‘현실 연애담’이 솔깃한 반면, 진절머리나는 에피소드에서 ‘있고 싶은 흑역사’가 떠올라 찜찜할 수도 있다.

여성 감독과 6번째 영화 ‘내용 터프해 끌려’

공효진으로선 여성 감독과의 작업이 여섯 번째. 앞서 <싱글 라이더>는 이주영 감독, <미생: 사라진 여자>는 이연희 감독,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은 임순례 감독,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는 부지영 감독, <미쓰 홍당무>는 이경미 감독과 작업했다. “아마 여성 감독과 작품을 가장 많이 한 여배우 아닐까 싶다”면서 “성별을 가리는 건 아니고 이번엔 성함이 중성적이라 만나보고 여성이란 걸 알았다”고 했다. 대본의 내용이 터프한 데다 남녀 관점 배분이 균등해서 더욱 끌렸다고.

최근에 작품 수가 유난히 많은 듯했다. 드라마는 <질투의 화신> 이후 3년 만이지만, 영화는 그새 5편을 선보였다. “사실 <미생: 사라진 여자>(2016) 개봉 전 1년간 작품을 쉬었어요. 긴장이나 열정이 사라져서 재미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쉬고 나니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이 줄줄이 찾아오더라고요. 연기란 게 계속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요즘 로코퀸, ~블리로 불리는 이들이 많다는 말에 그녀는 “제일 견제했던 분이 ‘마블리’(마동석)인데, 요즘 뜬금없다”며 웃었다. 오랫동안 공블리였지만, 이제 낮간지럼기도 하고 자신의 별명이라기보다 사랑스러운 배우를 수식하는 말이 된 것 같다고. 원조를 지키기 위해 뭘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그녀는 고유명사 같은 ‘공블리’, 그 이상 뭘 더 보여줄지 고민하며 노력할 뿐이다.



1,2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공효진은 사랑에 솔직하고 쿨한 선영을 연기한다.

아름다운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통영.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및 거가대교 건설로 매년 여행객이 늘고 있다. 통영 여행객이 반드시 가는 곳 중 하나는 대한민국 원조 벽화 골목이라 부를 수 있는 '동피랑'. 꼬불꼬불 이어지는 골목에서 마주치는 화려한 벽화는 여행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케이틀카, 루지, 어드벤처타워까지 통영은 여행객을 위한 체험 시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술인들의 문화 축제다.

통영은 '윤이상'의 음악 뿌리

통영은 국제적 규모의 전용 음악당 '통영국제음악당'을 설립, 2002년부터 매년 봄 통영국제음악제를 열고 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 평생을 그리워한 고향 앞바다를 품고 있는 통영. 윤이상의 음악 생애가 궁금하다면 통영시 중앙로 도천테마공원에 자리한 '윤이상기념관'을 둘러봐도 좋다. 기념관에는 윤이상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남긴 유품 148종 412점을 비롯해 늘 연주하던 바이올린, 항상 품고 다녔던 소형 태극기와 사진 5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살아생전 세계 5대 작곡가로 손꼽혔던 윤이상은 1917년 9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서당과 보통학교를 마친 뒤 오사카 음악학교에서 수학, 고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며 옥고를 치른 뒤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교가와 동요를 남겼다. 도천테마공원에는 기념관뿐 아니라 윤이상생가터, 윤이상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나는 통영에서 자랐고, 통영의 모든 요소를 내 품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 나의 평생 작품을 써왔습니다. 구라파(유럽)에 체재하던 38년 동안 한 번도 통영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 파도 소리는 나에겐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겐 음악으로 들렸습니다.”(1994년, 윤이상이 통영 시민에게 보냈던 육성 메시지)

시간이 여유로운 여행이라면 도천음악마을길을 거니는 것도 좋다. 윤이상이 아침저녁으로 다녔던 통영심상소학교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길은 효도와 작곡의 길(제1코스), 문화생태길(제2코스), 명상의 길(제3코스)로 나뉘져 있으며, 벽산쉼터, 한려수도 벽화, 음악을 소재로 한 벽화 45개소, 음악계단 1개소 등을 만날 수 있다.

윤이상기념관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27 도천테마공원
- 문의 055-644-1210
-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월요일 휴관

한국 현대소설의 어머니 '박경리'의 고향

박경리의 『토지』를 탐독했던 사람이라면, 통영은 꼭 가봐야 할 여행지다. 박경리기념관, 생가, 문장비, 묘소까지. 모든 것이 통영에 있기 때문이다. 박경리기념관은 2015년 5월, 박경리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된 해에 통영시 산양읍에 문을 열었다. 커다란 통유리로 통영의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념관은 국내에 있는 문학관 중에 가장 잘 꾸며진 곳으로 손꼽힌다. 박경리기념관에는 고인의 대표작인 『토지』 친필 원고와 여권, 편지 등의 유품이 전시돼 있으며, 박경리 작가가 집필한 책과 작품에 관한 논문 등을 볼 수 있다. 박경리기념관 정원에서 선생의 묘소로 올라가는 오솔길 어귀에는 박경리의 대표작 『토지』와 『김약국의 딸들』 일부를 새긴 문장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漁港)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 『김약국의 딸들』 제1장 '통영' 중에서

통영시 충렬1길 76-34(문화동)에는 박경리의 생가가 있다.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 무대인 서문고개의 꼭지면당으로 가는 길에 자리한 생가는 '서피랑 문학동네'

**통영에서 만난 예술가
 윤이상·박경리·전혁림**

여행에서 만난 인문학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 옥지도,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 케이틀카, 소매물도, 비진도 등을 이미 다녀왔다면 이제 문학과 미술을 만끽해보면 어떨까. 소설가 박경리, 화가 전혁림,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과 김춘수 등 통영이 낳은 예술가들을 꼽아 보자면 두 손이 바쁘다. 글·사진=엄지혜 <채널에스> 기자



1 윤이상기념관 외관 전경. 2 박경리기념관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3 박경리 생가. 4 통영의 대표 서점 봄날의책방 내부. 5 전혁림미술관.

표지판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박경리 생가는 통영의 역사 문화 기행 코스로 『김약국의 딸들』에 나오는 지명 표석을 볼 수 있으며, 올라가는 길 곳곳에 박경리가 쓴 시를 볼 수 있다.

박경리기념관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
- 문의 055-650-2543
-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월요일 휴관

통영의 피카소 '전혁림' 화백

통영의 미륵산 자락에 위치한 전혁림미술관은 통영 여행객들이 꼭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꼽는 곳이다. 미술관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외관은 전혁림의 아들이자 서양화가인 전영근의 작품을 세라믹타일 7500여 장을 제작해 완성했다. 미술관 3층 전면의 벽은 전혁림 화백의 1992년의 작품, '창(Window)'을 타일 조합으로 재구성한 대형 벽화로 미술관의 독특한 맛을 살렸다.

'바다의 화가'로 불리는 전혁림 화백은 1916년 1월 통영에서 태어났다. 통영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통영수산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졸업 후 생계를 꾸리며 독학으로 미술에 입문했다. 1938년 부산미술전에 '신화적(神話的) 해변' '월광(月光)' '누드'가 입선하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신진 서양화가로 주목을 받았다. 통영에서 해방을 맞은 전혁림은 통영문화협회 창립 동인(유치진, 윤이상, 유치진, 김춘수, 김삼욱 등)으로 참여했다.

2003년에 개관한 전혁림미술관은 화백이 30년 가까이 생활하던 집을 헐고 신축한 건물로 전혁림 화백의 작품 80점과 관련 자료 50여 점을 상설전시하고 3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하고 있다. 또한 전혁림의 작업실을 비롯해 생활공간도 함께 볼 수 있어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 한편 통영에서는 매년 전혁림예술제를 열어 역량 있는 청년 작가의 작품전을 개최한다. 올해 10월 7일 개막한 '제5회 전혁림예술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전혁림미술관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길 10
- 문의 055-645-7349
-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 월·화요일 휴관

책방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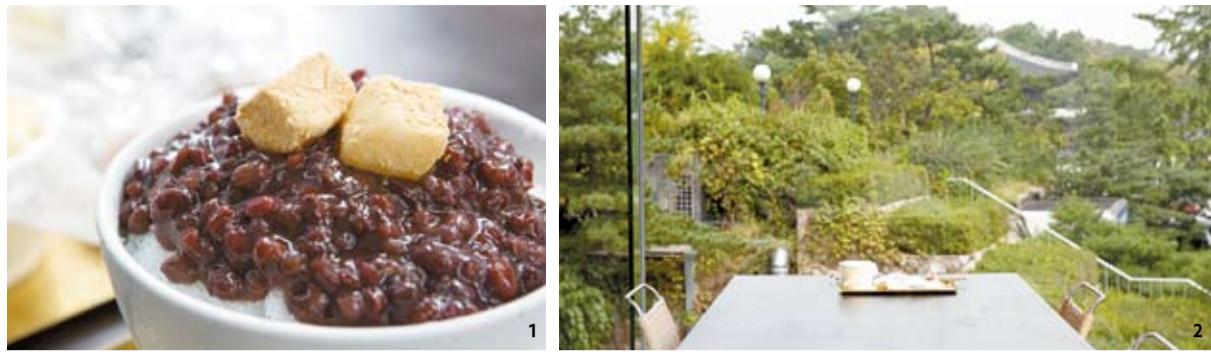
통영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다면, 통영의 대표 서점 '봄날의책방'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통영 봉수골에 자리한 '봄날의책방'은 출판사 남해의봄날이 운영하는 곳으로 통영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감성을 담고 있는 책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층에는 여행객이 숙박할 수 있는 북스테이 '장인의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다. 전혁림미술관이 보이는 '예술가의 방'에서는 미술·음악·공예·건축 등 다양한 예술 서적을 소개하고, '바다책방'에서는 그림책, 바다서적, 여행책과 함께 아트 상품을 판매해 특별한 여행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작가 초청 북 토크를 열어 작가를 만나기 위해 통영을 방문하는 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외에도 통영에는 시인 김춘수의 생가 및 유품전시관, 시인 유치환의 청마거리 및 청마문학관, 최영장군의 사당 및 당포성지, 이순신공원, 총렬사, 한산대첩 광장, 제승당 등을 잘 조성해 놓았다.

봄날의책방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길 6-1
- 문의 070-7795-0531
- 이용시간 수~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6시30분
 월·일요일 오후 1시30분~오후 6시 / 화요일 휴무





계동산책

**한국 전통의 맛과 분위기를 담은 공간
병과점 합(습)**

고전적인 붉은 벽돌 건물과 현대적 커튼월 건물이 선을 맞댄 구 공간사옥. 신관의 회색빛 계단을 올라 2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스러움과 모던한 멋이 어우러진 병과점 합(습)이 손님을 맞는다. 청담본점·원서점·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네 군데 매장 중 오직 원서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빙수를 소개하듯, 옛날식 파란 제빙기가 눈길을 끈다. 인사동의 4평 가계 시절이던 2010년에 합을 '빙수 명가(名家)' 자리에 올린 주인공이다. 담백한 수제 팔고 달콤한 유지향이 어우러진 유지빙수, 일명 '합빙수'는 여전히 시그니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편과 주악, 그리고 약과 또한 합(습)의 매력을 담은 대표 메뉴. 멧살을 막걸리로 반죽해 발효시켜 찐 증편은 무화과, 오디, 잣 등과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내고 약과 또한 조청이나 첨가물에 따라 여러 종류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찹쌀을 막걸리로 반죽해 튀긴 후 생강 조청에 집성한 주악을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조청에 매료돼 버린다.

이외에도 원서점에서는 바랍떡, 시루떡 등 다른 지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떡도 선보인다. 특히 시루떡은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다. 여름 끝자락까지 아삭한 초당옥수수 구미를 당겼다면 요즘 같은 가을에는 단감과 견과류, 홍시로 또 다른 깊은 맛을 선물한다.

합을 이끄는 신용일 셰프는 '원재료에 최대한 손대지 않는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최대한의 맛을 끌어낸다는 것. 단호박, 고구마, 무 등의 재료를 메인으로 듬뿍 넣고, 쌀가루는 재료를 밀집시키기 위한 조연으로 쓴다. 양질의 떡을 위해 자타 공인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병과의 전통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합. 통유리 너머의 한옥 지붕을 바라보며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즐겨보자.

1 고소한 인절미, 담백한 팔 아래 얼음은 향긋한 유자를 품었다. 2 합에서 다과를 즐기면 우거진 나무와 한옥 지붕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더한다. 3 개성지방에서 유래한 주악, 4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합 원서점 내부. 5 간장·유자·팔·호두 등 다양한 맛의 약과는 오븐에 구워 담백하고 풍미가 좋다.



합(습) 원서점
주소 서울 중로구 율곡로 83 2층
영업시간 화~일요일 낮 12시~오후 6시
(Last order 오후 5시)
문의 010-5027-8190

현대건설 맛집 탐험단 Hyun-Chelin Guide



★★★★★
입한 전통 디저트 카페에서 후식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팥빙수는 달달한 유지맛이 더해져 깔끔하고 인절미와 주악 등 떡도 맛있었어요. 가격이 비싼 편이라 배속과 대추차가 조금 더 진하게 우려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다과의 크기나 전반적인 퀄리티를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전통 다과를 즐길 수 있어 좋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한 카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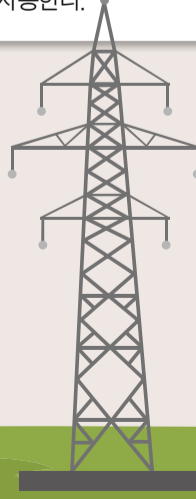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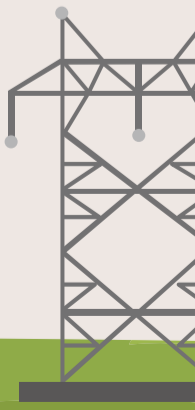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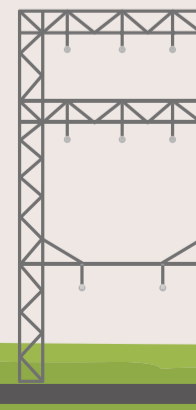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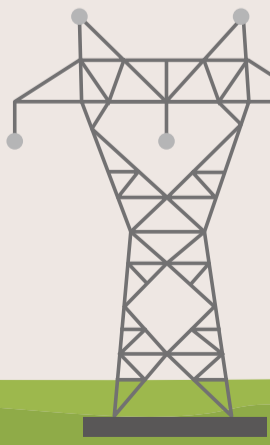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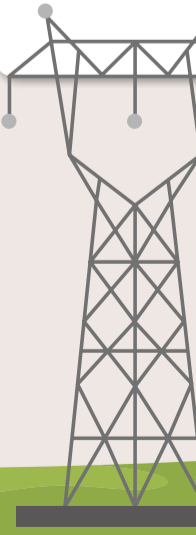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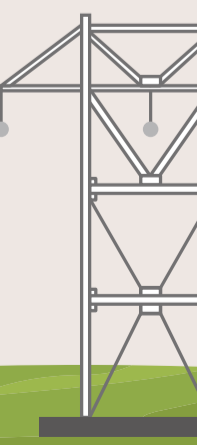


★★★★★
창 너머 한옥 지붕의 고즈넉함과 높은 층고, 통유리창의 시원함이 주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배속, 미숫가루, 대추차 등 음료의 종류가 단순한 대신 떡을 비롯한 다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주악은 생강맛이 진하지 않아 먹기 좋고, 시루떡과 인절미도 당도가 과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 월급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선물할 때 오통나무 포장은 받는 이로 하여금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까지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용어 쉽게 배우기

알고 보면 재미있는 송전탑 2편 전선로의 표준 경간 이내에 사용하는 표준 철탑을 형태에 따라 구분에 알아본다.

<p>사각 철탑 전선로 방향과 철탑 직각 방향의 강도가 같도록 단면을 정방형으로 설계한 구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2회선 송전선로에 주로 사용한다.</p>	<p>방형 철탑 전선로 방향과 철탑 직각 방향의 강도가 다르게 설계한 철탑. 단면이 직사각형 형태이며 주로 1회선 송전선로에 사용한다.</p>	<p>문형 철탑 문(門) 모양의 철탑. 전철선로, 송배전선로 인출 개소, 철도·도로 등 횡단에 사용. 갠트리 타워(Gantry Tower)라고 부르기도 한다.</p>	<p>우두형 철탑 철탑 중앙부는 좁고 상단부는 넓고 하단부는 4각 철탑으로 구성된 형태. 상단부가 소머리 모양이며 주로 전압이 높거나 산악지대에 위치한 1회선 송전선로에 사용한다.</p>	<p>회전형 철탑 철탑의 중간 부분인 암(Arm) 밑에서 90도 회전한 철탑. 철탑 부재의 강도를 가장 유효하게 이용한다.</p>	<p>MC 철탑 형강 대신 콘크리트를 채운 강관을 조립한 철탑. 강재료가 적게 들고 철탑이 가벼워 운반 조립이 용이하다. 원형 단면으로 설계 풍압 또한 적다.</p>
					

+잠깐! 표준경간 송전선로의 표준이 되는 경간(초고압 기준 400m 내외) 경간 철탑과 철탑 사이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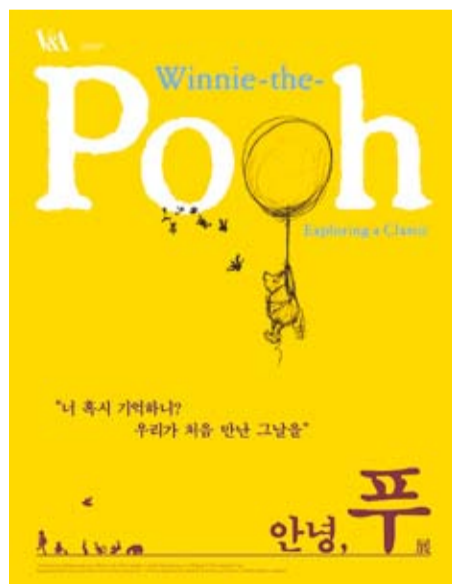


안녕, 푸展

소마미술관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51
 02-425-1077

2019.08.22 ~ 2020.01.05

“
 년 네가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하고,
 강하며, 네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
 Winnie the Pooh, A.A.Milne
 ”



1 3전시실 내부 전경.
 2 푸스틱(Poohstick) 놀이를 할 수 있는 3전시실.
 3 전시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

빨간 상의에 꿀단지들을 들고 있는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며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줬던 곰들이 푸가 전시로 한국을 찾았다. ‘안녕, 푸展’은 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원화와 스케치, 원작자의 편지, 초기 판본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이자 한국 순회를 끝으로 작품들이 소장가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 사실상 오리지널 드로잉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사랑스러운 곰들이 푸와 그의 친구들을 오리지널 드로잉과 사진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동화 작가 A.A 밀른과 E.H 셰퍼드의 육필 원고 및 편지를 포함해 총 230여 점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동화 속에 들어온 듯 주인공 푸가 되어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과 전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굿즈도 준비됐다.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는 곰들이 푸,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면 직접 푸를 만나러 가보는 것은 어떨까.



3